

總長들을 통하여 본 美國大學의 變遷

—60年代와 70年代의 統計를 中心으로—

宋 美 燮
(慶熙大 助教授)

I. 서 론

근래에 美國의 大學校들이 학생수가 많은 대학교이든 혹은 적은 대학교이든, 사립이든 혹은 주립이든,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교이든 혹은 석사학위까지만 수여할 수 있는 대학교이든 간에 모두 동일한 가치관을 향해서 닳아가고 있다고 David Riesman이나 Harold Hodgkinson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한편, Edward Gross와 Paul Grambsch 같은 學者들은 美國大學校들이 연구업적이 많고 학생 배출이 많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그리고 유명한 대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들 사이가 점점 상당한 격차를 두고 달라져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어느쪽의 주장이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한가지 방법으로서 여러 부류의 대학교를 대표하는 총장들의 이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각 대학교 총장은 그가 대표하는 대학교의 특성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추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려고 시도하였다.

첫째, 1962~64년도의 각 대학교 총장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대학교가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이든 석사학위까지만 수여하는 대학교이든,

사립이든 주립이든, 학생수가 많은 적든 간에, 모두 비슷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인가?

둘째, 1972~74년도에는 上記의 사항이 어떠한가?

이상 두 문제를 57가지 변인을 가지고 1962~64년과 1972~74년 사이에 미국 대학교 총장들의 학위, 전공분야, 경력 등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분석, 검토한 후 대학교들의 변천 양상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이 연구의 대상은 1972년 9월 1일부터 1974년 8월 31일 사이에 새로 총장을 임명한 미국 대학교 중, 석사학위 이상을 수여할 수 있는 대학교들과 그 대학교를 대표하는 새로 임명된 총장들과(98명: 이 숫자는 석사학위 이상 수여하는 미국 대학교 전체의 22%이며 지역적으로도 41주를 포함하였다.), 1962~64년 현재 이와 똑같은 범주에 속한 대학교 및 그들의 총장들이다(80명: 1962~64년에는 18명의 총장들이 1962~64년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대학교들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학사학위 이하를 수여하는 대학이었기 때문이다.) 전문직을 위한 대학교들(신학대학교, 사범대학교 등)과 학사학위 이하를 수여하는 대학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II. 총장들의 이력 변천

총장들의 이력이 1962~64년과 1972~74년 사이에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학력, 최종학력의

전공분야, 경력 그리고 개인의 특성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학위수여능력별, 사립 및 주립별 그리고 학교의 규모별 변인과 총장의 이력별 변인의 상관된 57가지의 변인을 추출, χ^2 검증을 한 결과를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학 력

학력에 관한 한 박사학위 취득자의 증가추세가 단연 현저했다. 박사학위 취득자가 아닌 총장들 중에는 전문직에 대한 학위취득자가 증가 되었고 석사학위 취득자의 수는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최종학위 및 박사학위를 주립대학교에서 취득한 총장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사립대학 총장들만은 학사학위를 사립대학교에서 취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대학총장들은 사립대학교에서 그들의 최종학위를 취득했었다.

1972~74년의 모든 대학총장들은 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대학교에서 그들의 최종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박사학위 수여능력이 있고 재학생수가 5,000명 이상이 되는 주립대학교의 총장들은 그들의 학사학위를 학생수가 많고 큰 대학교에서 취득했음이 밝혀졌다. 이와같은 점은 점점 많은 수의 대학총장들이 학부교육부터 대학원교육까지 재학생수가 5,000명 이상 되는 큰 대학교에서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임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점점 많은 대학총장들이 그들의 교육과정을 중간에서 휴학했다가 다시 계속하는 양상이 줄어들고 집중적으로 전과정을 마치는 경향이 늘어났으며 특히 주립대학의 경우는 이와 같은 현상이 현저하다. 또한 사립대학교에서 최종학력을 취득한 총장들은 주립대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보다 학위취득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음도 밝혀졌다. 이점은 주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의 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최종학력의 전공분야

1962~64년에는 37%의 대학총장들의 전공분야가 교육학이었는데 비해 1972~74년에는 17%

만이 교육학을 전공했다. 즉, 교육학 전공 대신 과학과 전문직 분야를 전공한 대학총장의 수가 증가되었다.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학생수가 많은 대학의 총장들은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고 사립대학교 총장들은 인문과학을 전공한 총장들이 많았다. 석사학위까지만 수여할 수 있는, 5,000명 이하의 학생수를 가진 대학교 총장들 간에는 교육학을 전공한 총장의 수가 상당히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많은 주립대학교가 규모가 작은 사범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벗어나 교육학 이외의 다른 학문분야도 대학원 과정에 많이 설립되어 일반대학교로 성장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신입총장들의 이력을 통하여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분석하였다.

3. 경 력

이 연구자료에 의하면 점점 더 많은 대학교 총장들이 고등교육기관에 국한된 교수경험과 행정직에서의 경험을 겸비한 사람들로부터 등용되었음이 밝혀졌다.

1972~74년에는 95%의 수가 총장이 되기 바로 직전에 고등교육기관에서 행정직을(90%) 맡고 있었거나 교수직을(5%) 맡고 있었다. 1900년 이후 대학교 총장들이 총장이 되기 직전에 가졌던 직업은 아래의 <도표 1>과 같다.

<도표 1> 1900년 이후 대학교 총장들이 총장이 되기 직전의 직업.

연 도	연 구 자	고등교육기관		기타	총 계
		행정직 %(N)	교수직 %(N)		
1900	Gordon	34(10)	45(13)	21(6)	100(29)
1950	Gordon	45(14)	29(9)	26(8)	100(31)
1962~64	Lee	73(55)	17(13)	9(7)	99(75)
1972~74	Lee	90(69)	5(4)	5(4)	100(77)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함.

1900년부터 1972~74년까지의 대학교 총장들이 총장이 되기 직전에 가졌던 직업에는 현저한

변화가 있었음을 이 도표는 보여주고 있다. 상당수의 대학교 총장들이 교수직에서 등용되었던 1900년에 비해 극히 소수의 대학교 총장들이 1972~74년에는 교수직에서 선임되었다. 즉, 대학교 총장들이 거의 고등교육기관의 행정직에 있는 자 중에서 선임되고 있다는 것이 근래의 추세로 반영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고등교육 이외의 분야에서 일하는 것은 대학교 총장이 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초·중등교육기관에서의 경험도 역시 대학교 총장이 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경험만을 요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대학교가 점점 커지고 기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대학교 총장 역시 그런 복잡한 큰 대학교의 환경 속에서 행정가로서 오랫동안 일해 본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최근의 추세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에서 연구대상이 된 대부분의 대학교 총장들은(1962~64년에는 88%, 1972~74년에는 77%) 당시 처음으로 총장이 된 자들이다. 두번째로 총장이 된 자들은 첫번째 총장직을 했던 대학보다는 더 나은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음이 밝혀졌고 두번째 총장이 되었을 때의 평균연령은 1962~64년에는 48세, 1972~74년에는 50세였다.

4. 개인의 특성(연령, 남녀비율, 저서활동 등)

총장으로서의 피임명시 평균연령은 1962~64년에는 46.6세였고 1972~74년에는 49.2세였다. 박사학위 수여능력을 소유한 큰 주립대학교에서는 이 평균 연령보다 더 고령층을 총장으로 원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교 총장들이 총장으로 임명되었을 당시의 연령이 42~53세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대학교 총장을 임명하려고 할 때 총장의 연령이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대학교 총장들이 처음으로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수는 점점 감소되어 가는 현상이었다. 이것은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있어서 명예박사 학위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1962~64년에는 연구대상인 대학교 총장들 중 5%가 여자였는데 1972~74년에는 이 비율이 8%로 증가되었다. 1962~64년의 여자총장들은 모두 카톨릭 수녀였는데 비해 1972~74년에는 67%의 여자총장들만이 카톨릭 수녀였다. 1962~64년의 여자총장 중 73%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었는데 1972~74년에는 83%의 여자총장들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여자총장들은 남자총장들보다 더 고령층에서 총장이 되었다. 여자총장들이 총장으로 임명될 때의 평균연령은 1962~64년에는 48세이고 1972~74년에는 51세였다. 1962~64년에 여자총장들은 전부 미혼여자들이었는데 1972~74년에는 83%의 여자총장들이 미혼이었다. 1959~61년에 연구한 Borchers의 보고에 의하면 10%의 미국 여자교수가 기혼자였고 90%의 미국 남자교수들이 기혼자였다. 그러므로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여자교수나 여자총장들은 거의 미혼이라고 할 수 있다. Harvard 대학교의 Patricia Graham 교수나 Columbia 대학교의 Martha Peterson 교수는 여자가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부터 남자들보다 상당히 어려운 결심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박사학위 취득이 여자의 결혼가능성을 거의 제거해 주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위에 박사학위 취득 후 교수가 되고 나서도 항상 승진의 기회가 적고 행정직이나 정책결정위원회에 임명되는 경우도 적으며 보수도 같은 조건의 남자교수들보다 83%밖에 받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첩첩이 겹치므로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의 지도층에 여성들이 극소수인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62~64년의 여자총장들은 모두 석사학위까지만 수여하는 학생수가 5,000명 이하되는 카톨릭 여자대학교를 대표로 하고 있었으나 1972~74년의 여자총장들은 남녀공학의 대학교를 대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석사학위까지만 수여하는 작은 카톨릭 대학교 뿐만 아니라 큰 주립대학교의 총장으로서도 일하고 있었다.

대학교 총장들의 저서활동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다. 특히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큰 주립대학교에서는 총장의 저서활동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석사학위까지만 수여하는 작은 사립

대학교에서는 총장의 저서활동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1900년부터 1950년까지는 동문을 총장으로 임용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근래에 와서는 동문이 총장으로 추대되는 경우가 감소되고 있다.

Ⅲ. 미국 대학교의 각 유형들간의 상관관계

1962~64년의 대학교와 총장간의 관계를 57가지의 변인을 가지고 χ^2 검증을 한 결과 12가지 변인만이 유의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12가지 변인 중 2가지 변인은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간에 나타났고 8가지 변인은 사립대학교와 주립대학교 사이에 나타났으며 나머지 2가지 변인은 학생수가 많은 대학교와 적은 대학간에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사립대학교와 주립대학교가 가장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립대학교와 주립대학교 총장들이 학력차이가 심한 현상은 흥미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1962~64년에는 거의 모든 주립대학교 총장들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는데(명예박사 학위는 제외) 비해서 사립대학교 총장들 중 박사학위 취득자는 겨우 59%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962~64년에는 사립대학교에서는 총장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보다는 다른 경력을 더 중요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사립대학교에서는 사립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든가 사립대학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했다든가 대학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고 문과계통의 공부를 한 사람들을 원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러면 1972~74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 시기에는 57가지의 변인 가운데 6가지의 변인만이 유의있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러므로 1962~64년보다 더욱 여러가지 형태의 대학교들이 그 특성을 잃고 모두 닮아간다고 볼 수 있다. 1972~74년의 6가지의 유의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 중, 3가지가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대학교와 석사학위까지만 수여할 수 있는 대학교들 사이에서 나타났고 2가지가 주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사이에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가지 변인은 학생수가 많은 대학교와 적은 대학교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10년동안 사립대학교와 주립대학교 차이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1972~74년에는 사립대학교 총장들의 이력이 주립대학교 총장의 그것과 같아져 가고 있었다. 흔히 예측하고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학생수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Ⅳ. 결 론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미국의 고등교육은 여러 학생들이 자자에 맞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각 대학마다 다양한 Program과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특색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각 대학교의 변천과정을 10년에 걸쳐 조사해 본 결과 대학교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저자는 미국의 고등교육은 획일적인 가치관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성을 중요시하는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획일적인 교육만이 제공된다는 것은 꽤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좀더 개성 있는 Program을 가지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